

“고분자과학과 기술지”의 편집방향

편집 간사 조 원 호



80년대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70년대 까지만 하여도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 즉 유전자 공학, 인공 지능 컴퓨터, 메카트로닉스 및 기능성 신소재 등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상식화된 용어가 되었다. 고분자 재료도 기능성 신소재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관한 학술 논문, 기술 특허 및 제품 개발도 매년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도 기술 개발 측면이 특별히 강조되었고,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 의하여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기술연구소의 연구 인력도 고급 인력으로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인 “폴리머”는 주로 학술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체의 현장이나 기술 연구소에 근무하는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학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안태완 회장님의 용단과 고분자학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0년부터 학술 논문지(폴리머)와 기술지(고분자과학과 기술)를 분리하여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학술 논문지는 순수한 학술 연구 논문만 게재하기로 하였고, 기술지는 학회 회원 모두에게 유용한 기술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술지의 편집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년에 6회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3회 정도는 특집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지식과 생각을 한군데 정리함으로써 그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일반 총설의 경우 학술적인 총설과 기술적인 총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술적인 총설만 게재될 경우 산업계나 기업 연구소에 게시는 회원들로 부터 흥미를 끌지 못할 경우가 생기며, 반대로 지나치게 기술적인 총설 즉 기술 해설만 게재된다면 학계에 게시는 회원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외 특허, 신제품 및 신간 서적 등의 기술 정보가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는 현장이나 연구소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학계에 게시는 분들에게는 기업 및 기술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회 소식, 회원 동정 및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 등을 게재함으로써 기술지가 본 학회 모두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의 몇가지를 제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다.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과 의견이 기술지의 편집 방향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기술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